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조이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종려주일예배 Palm Sun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큰 영화로신 주 (찬50/새35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윤영걸 장로 2부/윤주원 장로 3부/이강오 집사 4부/김도윤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호산나 주 찬양 (David T. Clydesdale)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세례(유아)/입교식 Baptism & Confirmation All together 다같이
2부/ 세례, 입교식 3부/유아 세례식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20-26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30:21-31:13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11) 천국에 못 가는 착한 사람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은혜의 공동체, 예수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 나의 모든 것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남는 자와 떠나는 자

One Who Remains and One Who Leave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제가 30년 전에 섬겼던 교회는 유학생들과 2세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캠퍼스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인근 교포 주민들도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어울려 교회를 섬기면서 한번은 누가 더 힘들까를 두고 토론이 일었습니다. 유학생들이 힘들까 아니면 이민 와 사시는 분들이 더 힘들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학생은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지 않은 생활에 영어로 공부하며, 논문을 쓰는 과정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민자들은 똑같이 힘들지만, 늘 공부 마치고 떠나가는 유학생들과 작별하는 것이 더 힘들다 했습니다. 유학생들의 생각은, 그래도 이민자들은 살 집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서 더는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으니 이민자들이 더 수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담임목사 관점에서 결국 금의환향하는 유학생들보다는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이민자들이 더 힘들다고 이민자들에게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매년 졸업 시즌이 되면, 주일마다 졸업하고 떠나는 성도들과 작별하는 것이 주요 일과였습니다. 축도 전에 작별 인사 순서가 되면 늘 눈물바다였습니다. 당시 저는 젊은 담임목사로 헤어짐의 슬픔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눈물의 5월을 보내면, 6월부터는 공항에 나가 새로 오는 유학생들을 픽업하고, 아파트 렌트와 중고차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고, 2세들을 위한 대학 사역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부모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를 받으며, 위로해 드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당시의 저에게 교인은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떠나는 자는 두고 온 교우들 생각보다 또 다른 낯선 현장에 어서 적응하는 일이 먼저일 것입니다. 반면 남겨진 자는 떠나간 교우들의 빈자리가 커서, 한참을 맘 다스리며 그리움을 달랠니다. 새로 유학 온 학생들로 교회가 다시 바빠지지만, 이런 일을 매년 반복하게 되면, 몇 년 후 떠나보낼 일이 생각나 새로 온 성도들과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정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인간관계가 자기 맘대로 되겠습니까? 같이 교회에서 김장김치를 담고, 행사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다 보면, 그만 정이 찰떡같이 붙어 버려, 경계하던 정이 폭 들어 또다시 눈물바다를 이루는 이별의 5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델 교회는 유학생뿐 아니라 주재원들도 많고, 은퇴 후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다양한 분들이 함께 베델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남는 자와 떠나는 자의 아픈 이별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헤어짐을 겪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떠나는 자는 파송 받은 선교사, 남는 자는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The church I served 30 Years ago was a campus church where members were mostly comprised of Korean foreign students and 2nd generation college students. We also had immigrant members. We all served together. One time, there was a discussion about which group had it harder than the others. Was it harder for foreign students or people who immigrated here? For foreign students, everything was new and unfamiliar. It was hard trying to study and write thesis in English. For the immigrants, it was just as hard, but saying goodbye to graduating foreign students was harder. The foreign students insisted that it was easier for immigrants because they had their homes and families here and did not have to live a nomadic life. As church's senior pastor, I sided with the immigrants, who were left to take care of the church, that they had it harder than the foreign students who went back for their golden careers.

Saying farewell to graduating students was a weekly event on Lord's Day during graduation season. When it came time for farewell announcements, which was right before benediction, the church became a sea of tears. As a young pastor, this parting sadness was extremely difficult for me. After a tearful time in May, June brings repetition of picking up new foreign students from airport, helping to find apartments and used cars. Then, there's the 2nd generation college students. Meeting their parents who came to drop them off, asking me to “Please take good care of my child”. I gave them words of comfort. At that time, to me, there were only two types of congregations, one who leaves and one who remains.

The priority of those who leave would be to overcome yet another unfamiliar situation rather than to think of those that were left behind. On the other hand, the emptiness from those who left is huge for people who remain. They longed for those who left for a long time. The church becomes busy again with newly arrived foreign students. When this cycle is repeated year after year, you want to keep a certain distance with new people. However, how could a human relationship work that way? When you work together, making winter kimchi at church, making and hanging event posters, you become close. You can no longer keep distance but become close until that farewell in May arrives again.

Bethel church has many foreign students, people here on corporate assignments, and those who are newly retired. Not only that, we have immigrants from Korea, and people who came for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Our Bethel community is comprised of many different people, and this pain of farewell continues. But, after 30 years of experience, this is what I think. Ones who leave are the missionaries being sent out, and ones who remain are the missionaries who will support.

고난 주간 묵상

그 고통... 그 사랑...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고난주간, 그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기고 QTin을 통해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을 마음에 품고 5일간 그 흔적을 묵상하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래의 내용은 QTin 4월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제1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막14:32-42)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잔을 옮겨주시되 나의 원대료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아버지께 구하십니다.

기도-예수님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2일: 잡히신 예수님(막14:43-52)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함이라"고 하십니다.

기도-주께 많은 사랑과 특권을 받았음에도 배신한 유다의 죄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3일: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막14:53-72)

대제사장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힌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옵니다.

기도-두려움에 쌓여 주님을 부인한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4일: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막15:1-15)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줍니다.

기도-저를 위해 빌라도 앞에 서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제5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막15:16-32)

군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끌고다로 끌고가 십자가에 못박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기도-능욕당하신 주님 때문에 제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수난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일본어 예배

내 모습 속에 주님



지난 4월 2일(토), 메이슨 파크에서는 베델 일본어 예배부에서 새생명 축제를 향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오던 VIP분들을 모시고 즐거운 야유회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봄의 기운을 알리는 푸르른 자연 속에서, 몸을 맞대고 함께 뛰놀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일본인들의 이미지는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실제로 느끼는 물리



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훨씬 먼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교회라는 이름에 덕지덕지 붙여진 이미지들, '부담' '두려움' '거리낌' 등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믿는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마련한 이번 야유회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고 수준 높은(?) 퀴즈와 게임으로 야유회를 이끌어 주신 팀장님, 홀라 후프를 무한대로 돌리면서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어 모두를 놀라게 해 주신 여든에 가까우신 권사님, 가수 겸 일본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멋들어지게 엔카(일본 대중가요) 한

자락 불러 주신 집사님의 섬김으로 모두 손뼉치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 소개와 함께 본인의 꿈을 나눌 때는 모두가 큰 박수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구나!'라고 느끼셨는지, 모두가 마음껏 즐기시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에도 대부분 참석해 주기로 하신 것이 너무나도 귀한 열매였습니다. '어서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라는 한마디 말에 눈시울을 붉히는 자매님의 모습을 보며 웃고 즐기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그들에게 더 이상 먼 이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첫 걸음을 내디딜 일본인 VIP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따뜻하게 전달되는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더불어 우리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용주 목사(일본어 예배부)

셀목자 정기 모임

허리띠 바짝 동여매고



셀목자 정기모임은 하나님께서 셀목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회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전 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맥 잡기는 셀모임을 준비하는 목자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향한 메시지를 듣는 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셀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박경철 목사님의 셀 목자로서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믿음의 훈련은 목자로서의 느슨했던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훈육하는데 필요한 믿음의 자세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훈련 때 나는 셀목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닌 경청하는 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3F(Fact, Feeling, Focus)는 목자로 셀에 속한 가족들과 대화를 소통하는 중요한 자세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있는 이 모임이 더욱 기다려짐은

훈련을 통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셀목자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사역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셀목자 정기모임을 통해 베델의 셀모임이 더욱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박미정 권사



가장 예쁜 사진으로 만들어 주신 셀목자 이름표를 목에 걸고 셀목자 훈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셀목자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고 보

듬어 주고 기다려 주고 품어 주었던 셀식구들을 위해 좀 더 성장한 셀목자이고 싶어졌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워서 더 나은 모습으로 셀식구에게 다가가기 위해 배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들려주시는 주일 설교 말씀은 셀목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시

간입니다. 더 은혜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셀로 흘러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보배로운 말씀이어도 저의 연약한 질그릇이 셀식구에게 온전히 전달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제 그릇을 좋은 그릇으로 잘 다듬어 가게 하시는 셀목자 정기 모임이 저에게 참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빛어 가실 저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고 말씀으로 셀을 인도하는 셀목자가 되겠습니다.

김선민 권사



2022년 신임 셀목자 수료

제자훈련 도서 소개

'희생은 능력보다 선행'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 '팬인가 제자인가'는 자기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예수님을 규정지으며, 때로는 팬으로 때로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제자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진정한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완전한 포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분명



된다는 것은 정체성 이 바뀌는 것입니다. 불같은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은 상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모두 하나로 귀결되고, 귀결된 그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던 것들, 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세상의 정

체성이 아닌, 오직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연히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팬들은 자신이 제자인 줄 착각하며 산다'는 부분에서 뜨끔했습니다. 나의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했던 그간의 경험들이 도리어 저를 교만하게 하고, 나는 제자임이 맞다며 저를 안주하게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여전히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가끔 주님의 생각과 부르심을 제한하고 예수님을 저 자신만의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죄를 짓고 있으며, 여전히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팬인가 제자인가'의 마지막 책장을 덮은 이후 하루하루, 순간순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저를 깨우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제자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총성된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날까지 힘껏 달려볼 것을 다짐합니다.

장현숙 집사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가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멋진 남편, 예쁜 두 딸과 행복했던 서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낯선 중국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남편 덕분이라 생각하며 결혼 10년 만인 2004년, 드디어 남편이 원하던 직장일로 기쁘게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즐겼지만 비위가 약

했던 저는, 한국에서보다 더욱 행복해야 했던 중국에서 한 달도 못 가 병원신세를 지며 급성 기관지염과 패혈증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멀리 하고 싶어 했던, 세련되지 못한 옷차림의 중국 할머니의 따뜻한 친절, 투박한 말투인 간호사의 온화한 손길과 눈빛에, 외모를 중시하던 저의 나약함을 하나님은 단번에 깨셨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너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웃이 누추하고 투박한 말투의 그들을 통해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렵듯이, 하지만 매우 강렬하게 중국의 한 병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공산국가인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믿는 중국인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중국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의 가슴을 때리는 찬양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중국인 친구 가족이 부르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양곡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펄펄 쏟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중국 찬양곡이 "shi ming(使命, 사명)"입니다.



지금도 이 찬양곡을 들으면, 낯설기만 하던 나라 중국의 병원에서 저를 찾아주신 하나님과 그때의 일이 생각나,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너무나 그림고, 우리 가족 다섯 명(중국에서 아들을 주심)을 중국 땅으로 데려가시고 자녀로 택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로운 눈물을 저에게 선물한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민주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목회지원/선교/BCA/QTm: 정승락 목사
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교육목사/전도폭발/기도: 박성권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성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충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성금요일 성찬 & 찬양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의 마지막 날은 성금요일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받은 고난과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 한없이 더 낮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며 십자가로 더 깊이 나아간 사람만이 3일 후 부활절의 기쁨과 감격으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도 그와 같이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20절) 성금요일 예배에서 드러지는 성찬이, 진정으로 그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달아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금요일 찬양은 드보아(Theodore Dubois)의 '십자가상의 칠언'입니다. 이 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일곱 개의 말씀을 모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상 칠언의 강력한 메시지가 아름답고도 장엄한 음악을 통해 성도님들의 가슴 깊은 곳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루신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며, 십자가 길을 함께 걷는 성금요일 예배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경건한 복장과 자세로 참여하셔서 십자가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일시/장소: 2022년 4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본당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4,5월) | 4/17: ①부-이강훈 ②부-이광수 ③부-이국선 ④부-김수빈
4/24: ①부-이대은 ②부-이범석 ③부-이상원 ④부-김예스터
5/1: ①부-우성무 ②부-이석희 ③부-이성준 ④부-김윤현

헬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4,5월) | 4/16: 김태원 4/23: 김태윤 4/30: 김현욱 5/7: 김현일

강단꽃(4,5월) | 4/10: 선상균 4/17: 노성애, 김성균, 조미리 4/24: 강문구, 김동심 5/1: 노성애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강민(임상병리), 간호사-홍정미

다음주 | 의사-이은유(한외과), 간호사-오선희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익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익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익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종려주일/성례식**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부 예배 시 세례입교식이 있고 3부 예배 시에는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입교(8명):** 백준희(Alicia Back), 석미주(Mila Suk), 석주희(Jana Suk), 성예지(Yeji Sung), 최고은(Katie Choi), 하동원(James Ha), 홍예리(Yeri Hong), 홍현민(Hyunmin Hong)

● **세례(12명):** 김문숙(Moonsuk Kim), 김영근(Young Geun Kim), 선예은(Jenny Seon), 이민지(Minji Lee), 이호림(Hyo Rhim Lee), 장수민(Justin Chang), 장연우(Rachel Chang), 장희령(Hailey Chang), 전미애(Miae Jeon), 채명주(Myungju Chae), 최민우(Patrick Choe), 황솔(Sol Hwang)

● **유아세례(12명):** 김노바(Nova Kim), 김시은(Jenna Kim), 김우주(David Woojoo Kim), 김우진(Daniel Woojin Kim), 김은별(Sophia Kim), 김준휘(Junhui Austin Kim), 박하루(Haru Park), 박하을(Avery Hayul Park), 백지울(Aaron Baek), 전루크(Luke Jeon), 차이레(Isabelle Yireh Cha), 청사랑(Ariel Tseng)

◆ **주차 Drill Sunday** 오늘 10일(주일)에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교회 주차장을 비우는 'Drill Sunday'로 지킵니다. 비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시는 분에 한해 당일 무료커피 쿠폰을 나누어 드립니다.

◆ **새생명 축제(D-7)** 부활주일(4월 17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까지 7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오셨던 VIP들을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에 초대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VIP들과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복음 샌드위치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차 안내: 새생명 축제 당일인 다음 주일에는 새가족(VIP)들이 원활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건강한 성도님들 비전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고 서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분들은 교회로 들어 오실때 차량 비상등을 켜주시기를 알려 주십시오. 문의: 김학남 집사 (408) 806-4133

◆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및 성금요일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무릎으로 나가는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집회는 '십자가로 더 깊이(QTin to the Cross)'라는 주제 아래 QTin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묵상하며, 특별히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의 여정을 영상으로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깊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 4월 11일(월)-15일(금), 매일 저녁 7시 30분, 본당
*성금요일(4월 15일)에는 성찬식과 베델 파이어의 특별순서가 있습니다.
*금주 "수요예배"와 "걸어서 베델 속으로"는 고난주간 저녁집회로 대체 됩니다.

◆ **부활주일부터는 현장 예배로! Go Deeper, Go Higher!** 다음 주부터는 현장예배로 모두 나오셔서 예배의 깊은 감격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 **레위 기도팀 모집** 레위기기도팀에서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본당 2층 컨퍼런스룸에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로 함께 동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안경 선교 훈련 안내** 안경 선교 훈련을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눈의 구조, 시력 이상 및 측정 검사에 대한 이론 교육과 선교 현장에서 직접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4월 18일(월)-4월 23일(토), 4월 25(월)-4월 30일(토), Canvas를 이용한 비디오 자율 학습
4월 24일(주일), 5월 1일(주일) 오후 1-3시 본당 2층 컨퍼런스룸, 대면 교육
문의: 김창남 집사 (949)939-8239

◆ **멕시코 일일선교 팀원 모집** 멕시코 일일 선교가 5월 7일(토)에 있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고석민 장로 (714)501-7456, 황기원 집사 (213)210-3215

◆ **유년부 예배실 장소 변경** 유년부 예배실 수리로 인해 당분간은 초등부 예배실(Gym)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시간은 동일합니다.

◆ **초등부 교사 및 TA 모집**

검침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모집 분야: 미디어/사운드룸, 바블 클래스 교사
문의: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 **소망부 교사 및 TA 모집** 소망부(장애인, Hope Ministry)에서 4월 23일부터 6월 18일까지 베델 토요학교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섬겨주실 선생님과 TA를 모집 합니다. 문의: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김종현 집사 (949)533-4520

◆ **2022 한국학교 여름 캠프(대면/비대면) 모집**

기간: 7월 11일-8월 5일(매주 월-금, 4 주간)
수업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대면)
오전 9시 30분-오후 11시 30분(비대면)
대상: Kindergarten(만 5세)부터 고등학생
등록 기간: 4월 30일까지
등록비: 대면-\$590, 비대면-\$295 (4월 30일 이후 \$30 추가)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부활주일 베델 사진관** 부활절을 맞아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코트야드 포토존에서 가족사진을 찍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우크라이나 특별헌금 2차 전달**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모아주신 헌금(\$25,310)이 폴란드 바르샤바 난민 센터 어린이 데이 케어와 브로츠와프 SCH (복음주의 교회)로 보내집니다.

◆ **목회자 동정** 에브리데이 교회의 후임 목사이신 손창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목회 현장 견습으로 참여하십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박홍열 장로님(박우희 권사의 남편)께서 4월 7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혜리 집사, 박민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A good person who cannot go to heaven (Matthew 5:20-26)

1. The Lord says that you will certainly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unless your righteousness surpasses that of the Pharisees. What kind of righteousness did the Pharisees have? (Vv 20, 22)
2. If the relationship with your brother or sister has been damaged, what do you think the reason is? Answer the question thinking about the meaning of 'Raca.' (22a)
3. The Bible states that anyone who says, 'you fool!' will be in danger of the fire of hell. What would be the reason to say these things to your brother, and why does it mention 'the fire of hell?' (22b)
4. Jesus interprets that the sin of being angry with a brother or sister will be the same as the sin of murder in the Ten Commandments. How can we surpass the righteousness of the Pharisees?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answer. (V 21, Ref/ Jeremiah 31:33, Ezekiel 36:27)
5. To be reconciled with your brothers, you must put on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What does it mean?

Apply to Life

